**미가** 5-7-2018 updated

**저자와 기록연대:**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7:18)라는 뜻이다. 선지자 미가에 관해서 알려진 바는 본서 1:1과 예레미야 26:18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0-686년, 유다의 요담, 아하스 및 히스기야 왕 때에 사역하였고, 이사야 및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다. 미가서는 주전 700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 본 서의 배경은 이사야 전반부와 같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배교 상태에 있었으며, 미가는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될 것과 (1:5-7), 남왕국 유다 마저도 멸망할 것을 예고했다 (1:9-16). 주전 734-732년에 앗수르의 디글랏 블레셀 3세가 아람, 블레셋,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였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각각 주전 732년과 722년에 멸망했다. 주전 701년에 유다는 연합국을 결성하여 앗수르에 반기를 들었지만 산헤립 왕에게 대패하여 많은 영토를 빼앗겼으나 수도 예루살렘은 멸망을 모면했다.

**주제**: 미가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정의, 인자,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부정과 반역과 헛된 의식주의를 싫어하시나 (3:8-12), 회개하는 자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7:18-19). 시온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4:1-2), 다윗의 왕국은 끝나지만 오실 구원자 메시야를 통해서 더 위대한 고지에 이를 것이다 (5:1-4). 주요 성구는 3:8-12, 5:1-4, 6:2, 6:8, 7:18-20등이다.

**개요**

1.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회복 (1-2장)

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1:2-2:11)

나. 남은 자의 회복 (2:12-13)

2.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 및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장래의 소망 (3-5장)

가.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3장)

나. 예루살렘 회복의 약속과 성취 (4-5장)

3.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승리 (6-7장)

가.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6:1-7:7)

나.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 (7:8-20)